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정치 그룹들이 내세운 건강 관련 공약들

EPHA (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¹⁾

번역: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사회당 그룹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 and Democrats : PES)¹⁾

사회당 그룹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유럽인들의 의료서비스 필요를 해결하는 유럽”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사회적 결과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해결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의회의 의원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넓은 의미의 ‘건강’을 유럽의 정책 형성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도 두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이슈와 관련된 역사적 퇴보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 그룹은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정책 형성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약속한 그들의 공약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시민 개개인은 때때로 유럽의 각종 기구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정부기구(NGO)가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사회당 그룹과 EPHA는 민중들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 환경 기준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1) EPHA는 유럽의 보건의료 관련 비정부기구(NGO)이며 벨기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 NGO,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연합하여 유럽의 공중보건 이슈에 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글은 EPHA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시 유럽의 각 정당 연합이 내건 공약 중 건강 관련 공약들을 정리, 분석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원문은 <http://www.eph.org/5984> 참조)

사회당 그룹의 집행위원장 후보인 마틴 슐츠는 그가 당선되면 아동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설에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빈곤의 늪에 빠진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 2011년 한 해에만 빈곤층 아이들이 50만 명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 전체 차원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처럼 제대로 기능하는 공공서비스는 불평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당 그룹 (European People's Party : EPP)²⁾

국민당 그룹은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부문, 연금 제도, 노동 시장, 교육 제도의 개혁을 지지한다. 그들은 이러한 부문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 전제조건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EPHA는 의료 부문의 개혁은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 부문의 개혁은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형평성을 위협할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특히 의료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당 그룹은 “건강한 노화”에 집중된 전략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일생 동안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EPHA는 이러한 전략을 환영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다고 생각한다. EPHA는 아동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전략도 요구한다. EPHA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접근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당 그룹의 공약에 제시된 형태의 건강한 노화 전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당은 광범위한 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한 부분으로 건강한 노화 전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 및 자유동맹 그룹 (Greens and European Free Alliance Group : Greens / EFA)³⁾

녹색당 그룹의 공약에서 건강은 환경보건의 맥락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맥락에서 그들

의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 포괄되어 있다. EPHA는 인간뿐 아니라 자원의 원천으로서 생태환경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경제 개념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녹색당 그룹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뉴딜 사업이 유럽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럽에 거주하는 민중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많은 이들의 상황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악화시켰다. 녹색당 그룹은 향후 5년간 유럽의 각종 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유럽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정책에도 이는 해당되는 것이다. 전 지구적 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연대가 필요하다. 녹색당 그룹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식품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PHA는 건강한 식품 공급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데 광범위한 이득이 있다.

자유당 그룹 (Group of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 ALDE)⁴⁾

안타깝게도 자유당 그룹의 공약에서 건강은 단일한 유럽 시장과 무역 자유화를 언급하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경제 활동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당 그룹이 모든 종류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종류의 차별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우리는 자유당 그룹의 그러한 정책이 유럽 안뿐 아니라 국경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권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이 수행되는 데까지 다다르기를 바란다.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 연합그룹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 EUL/NGL)⁵⁾

이 그룹의 대표인 그리스 시리자의 알렉스 치프라스는 1년을 주기로 밸런스를 맞추는

유럽연합의 예산 체계가 당장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은 가장 필요한 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유럽의 이주민 정책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의 현재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정책으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연구 개발 예산이 줄었다. 유럽연합 수준에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EPHA는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정치 세력들이 보여준 열정을 높이 산다. 그러한 열정이 국가 수준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자유당 그룹은 이 분야에서 가장 노골적이다.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⁶⁾ 지출의 구조적 개혁과 연구 개발 영역에의 투자를 주장했다. 국민당 그룹도 연구, 교육, 기술에 대한 성장 친화적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당 그룹은 재산업화를 위한 연구 예산 투자를 지지한다. 녹색당 그룹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가능한 기술에 대한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좌파
2) 독일 기민당, 프랑스 대중민주연합(UMP), 이탈리아 자유국민당(People of Freedom) 등이 주축이 된 중도우파
3)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각국의 녹색당그룹
4)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의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그룹
5) 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사당, 그리스 좌파연합, 스웨덴 좌파당 등 연합그룹
6)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연합의 농업 보조를 위한 시스템이다 : 위키피디아에서 발췌